

냈다.

5. 보건자원 이용시 어려운 점은 경제문제(32.4%)가 제일 컸으며 교통문제도 30.6%를 나타냈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보건간호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관리상 기혼자 및 보건사업 종사기간이 긴 유경험자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겠다.

2. 보건자원 이용에 필요한 참고서류철을 비롯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보건자원 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인 경제문제와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일부지역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실시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간전문문집, Vol. 7, pp. 155~184, 1981.

최오남

1981년 6월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남 순천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2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187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식과 실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었다.

1. 예방접종에 있어서 질병과 시기에 대한 지식은 홍역이 각각 76.5%, 74.3%로 가장 높았으며 B. C. G, D. P. T, 소아마비의 순으로 알고 있었고, 추가접종에 대한 지식이 37.4%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류와 시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연령별로도 별차이가 없었다.

2. 예방접종의 실시는 소아마비가 73.7%로 가장 높았고 D. P. T가 59%, 홍역 62.6, B. C. G 52.9% 그리고 추가 D. P. T와 추가 소아마비가 각기 44.4%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실시는 D. P. T와 소아마비, 홍역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시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고 그외 무학군에서 실시율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실시율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자녀를 가진 연령층이 실시율이 높았다.

3. 실시장소는 개인병원이 가장 많았고 보건소, 종합병원, 동사무소의 순이었다. 실시장소에 따른 이유는 개인병원에서는 “다니던 병원이므로”가 가장 큰 이유였고 보건소는 “나와서 맞추라니까” 종합병원은 “안심이되므로”이며 동회에서는 “나와서 맞추라니까”가 큰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어린이가 자주 아파서”가 가장 큰 이유이고, “접종내용과 장소를 몰라서”, “접종안해도 건강하니까”, “무관심해서”의 순이었다.

4. 지식에 따른 실시에서는 소아마비 82.7%, D. P. T 82.4%, 홍역 67.8%, B. C. G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접종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습득경로를 살펴보면, 의사나 간호원 및 보건요원을 통해서가 4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구나 동리의 주부를 통해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총합하여 볼때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목적 하는 질병과 관련하여 볼때 지식이 적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어머니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적기적절한 시기에 철저히 이행 되지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

잘 알고있는 경우는 그에따른 실시율이 높으므로 효율적인 면역화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통한 정확한 지식의 보급이 요망됨과 동시에 간호사는 보건교육의 중요 담당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어머니의 역할을 준비 지도하는 시기부터 양육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적합한 건강관리를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함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일부 농촌부인의 수유 산후 무월경 및 피임실시에 관한 연구

경남간호전문대학 논문집, Vo1. 9, pp. 145~157, 1982.

강 영 실

본 연구는 모성보건에 기초를 둔 가임기 모성보건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1982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 동안, 경남 경남 합천군에 거주하는 14-49세의 유배우 기혼부인 174명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설문지에 의거하여 수유, 산후무월경 및 피임실시에 관하여 조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대상부인의 연령별 분포는 40-44세군이 29.9% 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이 38.1세였다.

2) 교육정도는 국민학교 학력이하가 84.5% 로 낮은 교육수준이었다.

3) 초혼연령은 19세이하가 53.4% 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이 19.7% 세였다.

4) 결혼기간은 대상부인의 50.6% 가 20년 이상으로 평균결혼기간이 16.45년이였다.

5) 첫 분만시 연령은 20-24세군이 66.7% 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22.1세였다.

6) 임신횟수는 5회가 23.65로 가장 많았고 평균임신횟수는 5.1회였다.

7) 출생순위는 네번째 출생이 26.4% 로 가장 많았고 평균 4.2% 위였다.